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화재 안전성 대폭 강화

LH전북본부, 지난달 말 화재 취약 시설물 안전설비 설치 완료

LH전북지역본부(권창호 본부장)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종합플랜을 수립하고 3월말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에 안전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아파트 대비 화재에 취약한 LH가 매입한 전북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 480여동 5,200호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발생 예방, 화재초기 대응, 화재확산 방지의 3개부분 6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비용은 45억 원에 달한다. 화재발생 예방 부문에서는 주방내 조리기구 과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기구를 천지 일정시간 경과 후 자동으로

로 가스가 차단되는 안전시설을 구축했으며, 쓰레기 적치장소와 재활용품 보관소의 방화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 화재초기 대응 부문에서는 화재 대피 끝단계인 확보를 위해 세대 내부에는 소화기와 경보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했다. 또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필로티 내에는 스프링클러를 대체하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감해 원룸 화재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화재확산 방지 부문에서는 급격하게

상부층으로 화재가 확산된 제천 스포츠센터, 영국 호텔 화재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벽의 드라이버트와 필로티 천장판을 기존의 가연성 단열재에서 불연성 단열재로 교체했다. 권창호 LH전북지역본부장은 "소방시설 확충을 통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화재 걱정없이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화재, 방범 등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8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시민 대상으로 군산사랑 선불카드 지급을 위해 군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 어려운 군산시민 돕기

전북은행, 군산시와 '군산사랑 선불카드 지급' 협약 13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카드 10만원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8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시민 대상으로 군산사랑 선불카드 지급을 위해 군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출발점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로서 주수지가 군산시민 모든 군산시민에게 13일부터 군산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 10만원을 지급한다.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로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군산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에 숨통을 열어줄 수

있도록 유증업소,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 귀금속구입, 온라인 결제 등은 제한된다.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군산시로 일괄적으로 귀속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항토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아가지"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우·젓소, 환절기엔 더 특별하게 관리'를

농진청, 큰 일교차로 면역력 떨어지기 쉬워 품질 좋은 사료 제공·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큰 일교차로 소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세심한 축사 관리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8월 당부했다. 봄에는 건조한 공기가 소의 코 점막을 마르게 해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되기 쉽다. 소가 환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렴 등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소 축산 농가에서는 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사양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에게 깨끗한 물과 품질 좋은 사료를 제공하고,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환사 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축사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다. 소가 환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몸에서 이물질을 털어낸 뒤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해 소독하며,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특히 4월에 실시되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놓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구제역 백신 접종 직후 일시적으로 소의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반응이 나타났다. 소가 열이 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하고 회복한 다음 접종할 것을 권한다. 송아지의 경우 항체가를 높일 수 있도록 8주령과 12주령에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접종한다. 정기접종

은 연 2회 실시한다. 자가 접종 농가에서는 백신을 2~8℃ 냉장 보관하고, 접종 30분 전 꺼내어 내용물이 잘 혼합되도록 흔들어서 사용한다. 이때 소의 근육에 정확히 접종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봄철에는 모기가 전파하는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을 예방하는 백신 접종에도 신경을 쓴다. 이유(젓 떼는) 시기에 맞춰 소전염성비관염을 포함한 4~5종의 호흡기 질병 복합백신을 접종하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줄일 수 있다. 접종 시기와 횟수는 수의사와 상의한다. 류재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올 초 국내에서 구제역 감염환체(NSP)가 검출되어 높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축산 농가의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당부"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중기벤처부, 티앤제이건설 김지혜 대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기벤처부(장관 박영선)는 '2020년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티앤제이건설(주) 김지혜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티앤제이건설(주)는 기술중심의 전기, 통신, 소방 전기기업으로 40평



의 기술개발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15건의 특허출원 및 ISO 3건, 메인비즈·이노비즈확인서를 획득한 기업이다. 티앤제이건설(주) 김지혜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이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전북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인재양성과 여성인적자원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 인턴쉽, 현장실습 및 취업

을 지원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신규 재취업자를 29명 고용하며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에 공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거어르신 전기시설 교체 재능기부, 쌀·연탄·성금 등의 여러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차기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신청접수는 5월 15일 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2)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정보소외계층 돕는 'NH포디 예금'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판매액 0.1% 지원 기금으로 적립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판매액의 0.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비대면(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울원뱅크) 전용 상품 'NH포디 예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NH포디 예금'은 '디지털로 포용한다'의 의미를 담아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휴먼뱅크'의 구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상품 판매액의 0.1%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하여 정보소외계층에게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등을 지원하는 공익형 금융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고, 1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 원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비대면 가입 특별 우대금리 0.2%와 오픈뱅킹 이체 실적에 따라 우

대금리 0.3%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 1.45%(4월 6일 기준)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총 3천억 한도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공익형 금융상품으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금융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NH스마트뱅킹, 울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수상자 선정

사무소 대상 2개 농협 개인수상자 12명 배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2019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수상자로 전북에서 사무소대상 2개 농협, 개인수상자 12명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개인 수상은 최혜경(전주농협), 최미경(전주농협), 김혜원(전주농협 마중지점), 정승만(전주농협 송천지점), 장경화(전주농협 호성지점), 정미교(정읍농협), 유경연(정읍농협), 최진영(장계농협), 박정희(장수농협), 김미현(익산농협 모현지점), 김성경(남원농협 보정지점), 박예지(대야농협) 등 12명이 수상했으며, 사무소 부문에서는 정읍농협(유남영 조합장)과 대야농협(민윤기 조합장) 2개 사무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NH농협생명보험은 농업인 조합원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보험 사업추진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매년 연도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한다. 농협생명 전북총국 이숙 총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상에도 전북에서 10명 이상의 연도대상 수상자가 나와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사회 경제 환경속에서도 농업인 실익을 위한 보장자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여파 화훼농가 돕기

LX, 지역 농가 생산 꽃 판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 부사장)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 농가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LX는 8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1층 로비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꽃을 직접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꽃과 화분은 전주 시와 완주군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케어이션과 프리저, 장미와 튜립 등 모두 20여 단이 넘는 수량이다.

LX는 지난 2월 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권유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꽃 선물 릴레이'에 동참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공사는 직장 동료 생일 등 기념일에는 '꽃 선물 행복 나눔 릴레이'와 LX가족과 함께하는 '가화(家花)만사상 운동', 가정 내 '애화(愛花)키우기'와 임직원 사무실 내 '1회분 가꾸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로 인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농어촌공, 청년 농지 임대 지원사업 진행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 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 장기임대를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지사에서 있는 농지임대 시 관내 청년 창업농인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귀농인 등에게는 5

년간 발달물 재배를 원칙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to.or.kr)에 접속, 농지거러⇒농지은행매물포털을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 상한액은 남원군내 3만원/㎡(평당 10만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필지 당 1,000㎡ 이상의 면적이 대상이며, 연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1,000㎡~1,983㎡미만의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고, 지원신청은 남원지사를 방문하거나 620-2030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협, 민협·지방간 특성화시스템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민협과 지방간에 대한 특성화시스템을 시행한다. 민협은 국내 전체 9% 여성 중 2%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40대 철결핍 빈혈을 선정하며, 민협은 방치할 경우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지방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진료 인원은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은 40대, 여성은 50~60대의 비율이 높다. 지방간은 간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이에 건협은 건강검진 전 1:1 상담 및 과거 검진결과를 통해 빈혈 및 지방간 위험군을 선별해 특화 검진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집중 관리하는 특성화시스템을 운영한다. /김윤상 기자